

‘20대 국회’ 호남 중진에 듣는다

③ 박지원 (국민의당·목포)

“민심이 3당 체제 만들어... 이젠 야권통합 필요한 상황 아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목포시·4선)의 정치적 화두는 ‘정권창출’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을 강조해왔다.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꿈’이라고도 했고 시대에 헌신했던 호남 민심에 대한 ‘의무’라고도 했다. 특히, 원내 3당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국민의당이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적 존재감과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박 의원의 노련한 경험과 전략, 내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이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호남의 피와 땀과 눈물을 위해 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호남 민심이 주도하는 정권 창출만 이뤄진다면 자신의 정치적 역할은 끝나는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13 총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의 요구는.  
 ▲호남이 더 이상 피폐되고 차별받아서 안 된다. 생존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다. 더민주의 패권주의로는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과, 그동안의 배신감도 작용했다. 결국 호남 민심은 야권 재편을 실현, 대선 구도의 판을 바꾸는 힘을 보였다.  
 -야권의 정권 창출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정권창출 위해 수위라도 하겠다  
 원내대표는 양보, 당권 고민할 것  
 정치적 욕심 버리면 민심 찾아와  
 문재인, 손학규에게 배워야

▲정권 창출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이 결집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정당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에 국민은 이제 야권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다. 야권이 잘하기만 한다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  
 -국민의당 정권 창출의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한다면.  
 ▲19대 국회가 가장 비생산적인 국회로 비난받았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국민이 3당 체제의 황금 분할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에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제3당을 넘어 정국을 주도하는 정당에 돼야 한다. 여야를 넘나들며 민생을 원칙으로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협상과 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을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이 신뢰하고 지



지하게 된다.  
 -정권 창출 방법론은.  
 ▲더민주가 이번 총선을 통해 ‘도로 문제인당’이 됐다. 사실상 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대선주자다. 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문호를 개방, 대권의 꿈을 가진 모든 후보들과 경쟁하겠다고 했다. 확장성이 더 크다. 바람이 불 것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용광로 경선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야권 통합론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고, 호남이 없어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 통합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총선을 통해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심이 20대 국회를 3당 체제로 만들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야권 통합이 필요한 상황 아니다. 호남 민심의 결집과 외연 확대가 이뤄진다면 국민의당이 집권할 수 있다. 후보단일화도 국민의당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  
 -연립정부 전제로 한 후보단일화 목소리도 있다.  
 ▲호남 주도로 독자 집권이 어렵다면 조건이 있는 지지를 해야 한다. 과거 5%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충청권의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DJP연합을 통해 정권의 절반을 가져갔다. 호남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에게 조건 없는 지지를 했지만 아무런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면 호남은 연립 및 연합 정부 형태로 지지를 해야 한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호남과 일종의 연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호남을 위해 뭘 해줄 것인가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고 국민의당 후보도 응대해야 한다.  
 -박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당의 집권을 위해서라면 수위라도 하겠다. 3당 체제에서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인사가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 하지만 18대,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양보하겠다. 나는 당권, 대권을 놓고 고민하겠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 은퇴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분의 말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문 전 대표가 약속을 안 지키면 국민은 ‘대통령 되어서 거짓말 하겠구나’라고 생각한다. 문 전 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에게 배워야 한다. 손 전 대표는 보궐선거에 패배하자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 강진 토론회에서 지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8%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정치적 욕심을 내려놓으면 민심이 다시 찾는다. 집착하면 모든 것이 꼬일 것이다.  
 -당 일각에서 호남 자민련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도 있다.  
 ▲호남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러면 호남 민심이 떠난다. 한방에 훅 간다.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 존립 근거다.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집도끼를 지키면서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

지역경쟁력 강화 광역거점사업 주먹구구

예산 배분 불균형 심각하고 국가사업과 중복

감사원 ‘육성사업 추진 실태’ 결과 공개

광주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던 A씨는 무려 6개월 동안 모 도시공사의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무에 100% 전념하게 돼 있음에도 타 공공기관의 업무에 40%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전담인력의 외부 용역 참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00회를 웃돌았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 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 사업(이하 광역거점사업)은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해 특정 지역에 관련 첨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서울·인천·경기·세종 등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부는 구체적인 사업 목표나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전 지역의 평균 예산은 294억원이지만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756억원을 지원받은 지역도 있는 등 예산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거점사업과 국가사업이 중복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광역거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린전기자 동차차량부품사업과 클린디젤차동차핵심부품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사실상 동일했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지원센터의 경우 직원 14명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2~2014년 206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하면서 총 1억45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0개 수행기관에서 증빙 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19건에 대한 사업비 1억1천7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밖에 진흥원 발주 과제를 수행한 3개 기관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2차례에 걸쳐 관세 4천7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6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19~20일 중국 자매·우호도시인 산서성 창즈시와 허난성 뤼양시를 방문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19일 시사오전 창즈시장과 관광교류 업무협약 체결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시, 대중국 관광교류 활발해진다

윤시장, 창즈시·뤼양시 방문 협약

광주시와 중국 산서성 창즈시, 허난성 뤼양시 간의 관광분야 교류·협력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2016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19~20일 중국 자매·우호도시인 산서성 창즈시와 허난성 뤼양시를 방문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장현 시장은 시사오전 창즈시장, 다오창용 뤼양시장을 각각 만나 양 도시 간 관광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상품 및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창즈시·뤼양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양 도시의 관광자원, 의료관광 등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관광박람회 등의 적극적 지원 및 참여, 상호간 관광 홍보 지원 등도 약속했다.

창즈시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공항이 준공되면 광주와 직항 취항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윤장현 시장은 “이번 중국 현지 관광세일즈를 밀거름 삼아 양 도시 간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 차원 높은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마가세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52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 ▶ 부관철회 북규슈 미야지마,이와쿠니 3박4일 특가 1인당 ₩44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신용카드

##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b>울란바토르, 테를지</b>	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	<b>트래킹</b>	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
	4박6일 ₩1,649,000	출발일 :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 8/6		4박6일 ₩1,549,000	출발일 : 8/6

불포함 : 신용카드, 호텔(2인실)/캐리(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발사지 봉사료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출발일 7/13 ~ 8/24(수, 토 출발)

- ▶북파·용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품격] ₩1,250,000~
- ▶북파·서파(천지2호) 4일 [실속] ₩1,250,000~ [품격] ₩1,340,000~
- ▶북파·서파·용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품격] ₩1,390,000~

불포함 : 신용카드,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가이드/기사팀(3박~\$30, 4박~\$40)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면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출발일 7/31, 8/4, 8/8, 8/12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 3대 게요리 포함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 3대 게요리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기타매너팁,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 불포함 : 개인경비,매너팁,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식별관광, 석식2회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식별관광, 석식2회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55,000~

**직인 및 일본어 가이드 모집**

모집인원 0명      외국어구사 능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경력사유가 없는 자  
 ※운전면허 소지자      ※출메이지 관리 유경험자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선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지보험 가입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매일)은,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